

'4·13'의 선택

매춘 갈수록 조직화...뿌리 뽑자

2일 윤락녀 2명이 자신의 처지와 세상살이를 비관한 나머지 한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는 나라인조차 의심스럽다. 매춘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세계에서 연간 1백만명의 여성들과 아이들이 수십억달러 규모의 '성(性)노예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다고 최근 보도하면서 성노예시장으로 밀매되는 여성과 아동들의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누이라 생각하고 딸처럼 생각하면 들짐승과 같은 마음 조복받아 순일하게”

그러나 매춘밀매가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이성에 대한 그릇된 욕망이 수없이 공금이 뒤따라가기 때문이다. 물론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물론 철저한 단속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경찰과 각급 교육·행정기관이 힘을

합해 나선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매춘 밀매를 부르는 인간의 욕망이 절제되어야 한다. 바로 그 지혜를 담고 있는 <잡아함경>의 이야기는 좋은 가르침이다.

우대나왕이 다시 “그러나 존자님,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그레도 이성을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라고 묻자, 관동라 존자는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각기관을 굳게 지키고 그 마음을 잘 붙잡아 매어야 하며, 대상에 집착하면 탐욕이 생기니 빛깔, 소리, 향기, 맛, 촉감, 생각의 분별을 단속해야 욕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또 흥청망청

유혹오락비 지출 급증

사치성 소비재 수입 늘어

우리가 과연 IMF의 혹독한 시련을 겪은 국민들이 맞는가? 국민들의 유혹오락비 지출과 사치성 소비재 수입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언제 어려운 시절이 있었느냐고 되묻는 것만 같아 슬플하다.

英, 인간배아복제 허용 검토

영국 정부가 인간배아 복제를 공식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의학계와 인권옹호성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자들은 인간배아 복제가 백혈병과 파킨슨병, 암 등 각종不治병 치료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의학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외국인 살기 힘든나라

한국, 아시아서 첫번째

한국이 아시아에서 외국인이 살기에 가장 힘든 국가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의 한 연구기관인 정치경제 위기관리사(PERC)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부족과 문화적인 차이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여전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3일 오전 4·13총선 선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총선시민연대 회원들이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꾼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가두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지지 호소했다. 이에는 국민의 '현명한 선택'만이 남았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부패한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

21세기의 첫 선거, 4·13 총선이 목전에 다가왔다. 지난 세기의 낡은 유산을 청산하고 희망찬 새 천년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새 천년 첫 선거 '뜻있게'

이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새 시대의 국가발전과 국정의 틀을 올바르게 세우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변화에 걸맞은 청사진을 제시하고 검증받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함축되어 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변화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구태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해답은 명백하다.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4·13 총선에서는 정치 도덕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후보자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첫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후보자이다. 병역, 납세 등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후보자는 국민을 포기한 사람이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듯이 이런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될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둘째, 부정 부패한 후보자이다.

우리의 정치사는 부정 부패로 얼룩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정 부패는 정치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총체적인 현상이다. 그 가운데 심한것이 바로 정치인의 부정 부패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인이 다소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적어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후보자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셋째, 거짓말하는 후보자이다.

선거에서의 공약이나 정책에서의 거론된 내용이 공약이나 정책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후보자이다. 선거에서 유래하고 있듯이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 하고 있다. 정치인은 그 나라의 양심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후보자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자격없는 사람 '절대 안돼'

넷째, 배신 잘 하는 후보자이다. 전·현직 정치, 위·아래끼리, 동료끼리, 유권자와 후보자끼리 사익(私益)과 권력에 따라 배신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 이런 행태가 소신이나 명분도 없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왔다 갔다 하는 후보자로 만들었다. 의리와 소신이 없는 후보자는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는 반심(反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다섯째, 파렴치한 후보자이다. 사람으로서 지어서는 안되는 죄를 짓거나 행동을 하면서 오라비단 내미는 위선자는 후보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강·절도, 사기, 횡령, 폭행, 성범죄 등은 가장 저질적인 행위이다. 이런 후보자는 퇴출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아직도 유권자의 도덕감염이나 연고주의가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감의 필요가 있다.



유광진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Large advertisement for Buddhist products. Title: '2544년 봉축 현수막' (2544th Buddhist Anniversary Banners). Includes various banner design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uddha's Birthdays' (2544). Products include character t-shirts, aprons, and various religious items.